

## 일반인, 군복 입으면 처벌

### 국방부 법률 공포, '밀리터리룩'은 제외

짧은 머리에 진짜 군모나 군복을 착용, 군인처럼 보이는 일반인은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8일 일반인의 군복 및 군용장구 착용, 소지, 휴대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착용, 휴대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된다.

일반인에게 유사군복을 제조,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짧은층이 즐겨 입는 밀리터리룩(군대풍의 옷차림)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5개월만에 종결 '브로커 윤' 수사

### 범죄 혐의 39건

### '배후'는 못밝혀

지난해 11월20일 김포공항 귀빈 주차장에서 검거된 뒤 정치권과 법조계, 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윤상림씨 사건'이 5개월만에 사실상 끝났다.

윤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일부터 대검 차장을 지낸 김학재 변호사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등 윤씨와 돈을 주고 받았던 전직 검·경 고위 간부의 처벌 여부를 차례로 결론 짓고 수사팀을 해산할 방침이다.

검찰은 브로커 윤씨 1명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 5명을 투입하고 몇 달에 걸쳐 1천여개의 실명·차명 계좌를 잡아들여 연인원 수백명의 참고인을 소환했다.

그러나 로비 대상이 됐던 '배후세력'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희대의 브로커'라는 평이 무색하게 됐다. 또 39건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6차례에 걸쳐 기소했으나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몸통'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 외에 윤씨와 돈거래를 했던 변호사 10여명 중 절반은 돈을 빌린 피해자인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고, 검사장 출신 K씨 등 나머지 3~4명의 변호사는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 받은 총경·경정급 전·현직 경찰 간부 3~4명은 최근 새로운 혐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결론을 당분간 유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 광주지검 검사들의 '1일 감옥 체험'

# “수의 입고 수감되어 보니 구속 결정 더욱 신중해야”

### 10명 독방·식사·수감 착용 등 6시간 생활

오전 10시, 육중한 철문을 열고 교도소에 들어간 검사들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휴대전화·담배·반지 등은 곧바로 영치됐고, 가지고 있던 현금도 맡겼다. 수용자 카드 작성과 신체검사, 건강검진을 받은 뒤 이틀 대신 불

릴 7001번부터 7010번까지의 번호를 부여받았다.

한 시간여 동안의 입소 절차를 마친 검사들은 황토색 수의에 검은 고무신을 신고 4.88평짜리(7~8인실) 감방인 7동 5호실과 6호실에 5명씩 '미결

수' 신분으로 분산 수감됐다. 파스한 봄햇살을 뒤로 하고 어두컴컴하고 냉기가 도는 감옥에 들어갈 땐, 모두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검사들은 방에 비치된 주의사항을 눈여겨 읽거나 방안 변기 등을 살펴보는 등 감방 안을 조심스레 둘러봤다. 점심시간, 감방문에 난 가로 30cm·세로 15cm의 조그만 구멍을 통해 다른

재소자가 떠준 밥을 받아 점심 한끼를 때웠다. 메뉴는 다른 재소들과 똑같은 1식3찬. 쌀과 보리를 7:3으로 섞어 지은 밥에 반찬은 콩나물 무침·물김치·동태찌개였다.

식사 후 잠깐의 휴식시간 중 신문과 책을 읽던 이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감 등 계구(戒具)를 착용하고 1.06평짜리 독거실에 수용됐다. 감방을 빠져나온 시간은 입소 6시간여만인 오후 4시10분. 수형생활을 마친 후 교도소 관계자들과 예로사항과 소감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자용(형사 3부) 검사는 "비록 하루 동안의 수형생활이었지만, 자유가 그리웠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오현철(형사 1부) 검사는 "처음 들어온 교도소라 다소 긴장되고 떨렸지만, 재소자들의 생활을 직접 겪어보니 검사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구속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우수 광주 교도소 총무과장은 "교정기관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사회와 함께하는 시설임을 알리기 위해 수형생활 체험 기회를 법학 전공 대학생·사회복지사·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의사항 잘 들으세요"

'1일 감옥체험'에 나선 광주지방검찰청 수사지휘 전담 검사 등 10명의 검사들이 18일 광주교도소에서 미결수용 황토색 수의로 같이입은 뒤 감방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수감생활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 27일 대규모 집회 '긴장'

#### 각계 '평화집회' 호소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협력사 노사 문제와 관련,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희성)는 오는 27일 순천공장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과 함께 ▲해고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 ▲사측이 입었던 손

해배상 소송 취하 ▲4조 3교대 실시 ▲노조활동 인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번 집회가 경찰버스 3대를 전소시키고 경찰과 조합원 등 113명이 부상당한 지난해 10월 집회보다 더욱 격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박현호 순천경찰서장은 이날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지난해 10월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면 지역 이미지는 만회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이번 집회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중 순천시장 권한대행도 이 자리에 참석해 "이달 말 안에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하이스코 협력업체 해직 근로자 등 61명은 지난해 10월 복직 등을 요구하며 순천공장 크레인을 점거, 농성을 벌이다 순천시장과 하이스코 공장장 등이 '해고 근로자 고용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서에 공동 서명하자 농성을 풀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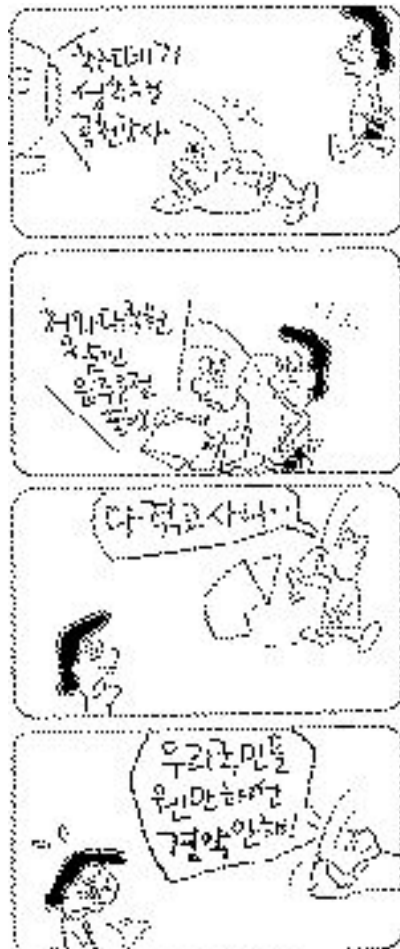
#### 내연녀 영종 살해 40대

####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세욱)는 18일 대법원 파기 환송심 판결에서 내연녀를 영종으로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광주시 서구 금호동)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와 살인에 사용된 영종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살인혐의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원침 (6808)



**연예2차(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부 지중 353명 353부지  
문의 (062)366-4220

#### 검찰, 민주군수 후보 내사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전남 모 지역 민주당 군수 후보인 A씨가 도의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그러나 "공천과 관련한 자금수수가 있었다면 정치직·법직 책임을 지겠다"고 전면 부인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어린이 상대 '060 이용료' 7억원 행거

○서울 해화경찰은 18일 어린이를 상대로 '060'을 운영한 모 케이블 방송사 편성팀장 이모(35)·총괄국장 이모(37)씨를 불구속 검인.

○이들은 지난해 A채널 만화영화 프로그램 후 자동응답시스템(ARS) 퀴즈를 낸 뒤 3분당 1천200원(일반전화 39원)의 요금 부과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7여억원의 정보 이용료를 챙겼다고.

○경찰 조사결과 이 때문에 일부 가정에는 한달 최고 63만여원의 요금이 부과됐으며, 퀴즈를 맞췄어도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

이제! 아낌없이 무방안을 선택한다면 인 줄도  
세상에서 최고의 혜택  
**오네뜨빌**  
윤원동 오네뜨빌 잔여세대 분양중  
57-52-50 48평형 / 11실 2욕 / 225-0070

**세계최초 공기과학 냉+난방기**  
공기를 에너지도  
유지비용 1/3로  
유해가스를 0%로  
사용요금을 일반전력보다 낮게!  
3년 무상정비보증  
내년 5월 15일까지 10% 할인  
10년간 내분해하는 친환경 제품을 찾았습니까?  
에너지부품 교체 비용 걱정 없이  
이제부터 설치하세요!  
주요사업자 추천  
●신도시 200여곳에 10만여대 이상  
●신도시 100여곳에 10만여대 이상  
●신도시 100여곳에 10만여대 이상  
●신도시 100여곳에 10만여대 이상  
●신도시 100여곳에 10만여대 이상  
●신도시 100여곳에 10만여대 이상